‘정인이 입양모’, 엄벌 탄원 600통 육박

새해 첫날에만 152건 접수…5일 28건 추가
‘강력 처벌 진정서’·‘엄벌 탄원서’ 등 들어와
사망 전 3차례 신고…경찰 부실수사 의혹에
분노 시작…100여개 화환 행렬·청원글 게시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입양모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새해 첫 평일부터 이틀간 180여건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 것까지 모두 합치면 600건에 가까운 탄원서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되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 1차 공판기일은 오는 13일 예정돼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입양모 A씨와 남편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접수된 탄원서는 이날 오후 2시께 기준으로 566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강력 처벌 진정서’, ‘엄벌 진정서’, ‘엄벌 탄원서’ 등이 포함됐다.

전날 오후 5시께까지 진정서 152건이 접수된데 이어 이날 오후 2시50분께 기준으로 약 28건이 추가로 접수된 상황이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진정 독려 캠페인 등이 벌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재판부에 진정서가 계속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홈페이지에 관련 글을 게재하고, “진정서는 재판 내내 들어가도 된다”면서 “선고일 10일 전까지만 들어가면 되니 앞으로 몇 달 간은 계속 보내도 된다”고 전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25일, 6월29일, 9월23일에 정인이 입양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주의’나 ‘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대아협은 양천서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주장해왔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A씨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이후에는 ‘살인죄’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 서울남부지검 앞에는 지난달 14일 50여개의 근조 화환이 설치됐다. 여기에는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한을 풀어주세요’,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사랑해’ 등의 정인이 추모 메시지와 A씨에 대한 살인죄 기소를 요청하는 문구들이 적혔다.

화환 행렬은 50여개가 추가된 2차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A씨에게 엄벌을 요청하는 2건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청와대 답변 정족수인 20만 동의를 넘기도 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국민적 분노가 이어졌다.

지난 2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대아협 등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하는 등 추모 분위기가 더 거세졌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SNS 등에서 확산되기도 했다. 해당 챌린지에는 문화, 체육계 유명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검찰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하는 재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A씨를 살인죄로 추가 기소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겼다. 입양부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살인죄와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구분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둘 사이 형량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신봉우 기자

‘스파링’ 가장 학폭피해 학생, 의식 되찾아 일반병실로

“골든타임 놓쳐 뇌 손상 심해 더디게 차도 보여"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고등학생이 의식을 되찾아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5일 지역 맘카페 ‘영종국제도시:영맘’에 따르면 지난 1일 피해자 A(17)군의 아버지가 게시글을 통해 호전된 아들의 소식을 전했다.

A군의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마쳤고, 이제부터 몇 년 길게 보고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쳐 뇌 손상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환자보다 아주 더디게 차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치의 선생님은 천천히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해줬다”며 “그러나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아들과 함께 이겨내고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A군은 좌뇌가 손상돼 오른쪽 눈과 팔, 다리 등의 반응은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왼쪽 손과 팔을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또 손가락 한 개는 긍정의 의미, 두 개는 부정의 의미로 약속하고 표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

영맘 카페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한달동안 3463만원을 모금해 A군의 가족에게 전달했다.

모금에 참여한 카페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힘내세요 우리 아들 잘 이겨낼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잘 이겨내도록 기도 할게요” 등의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모금합계 : 34,631,902

조회기간 : 2020.12.02 ~ 2021.01.05

No.	거래일시	적요	의뢰인/수취인	출금액(원)	입금액(원)	잔액(원)
1	2020.12.31 23:36:17	전자금융	아들새해복당이방아	0	10,000	34,631,902
2	2020.12.31 22:18:06	타행송금	여러 일어나자	0	10,000	34,621,902
3	2020.12.31 21:59:15	전자금융	행아힘내세요	0	10,000	34,611,902
4	2020.12.31 21:20:06	스마트알림	일어나랍쳑자!	0	30,000	34,601,902
5	2020.12.31 20:14:55	전자금융	일어나 랍쳑자!	0	20,000	34,571,902
6	2020.12.31 19:40:56	전자금융	아들아내일은일어나자	0	10,000	34,551,902
7	2020.12.31 18:51:27	전자금융	힘내일어나랍쳑자!	0	30,000	34,541,902
8	2020.12.31 18:42:12	스마트알림	일어나랍쳑자	0	10,000	34,511,902
9	2020.12.31 17:21:27	스마트알림	일어나랍쳑자	0	10,000	34,501,902
10	2020.12.31 17:00:08	CD-송금		0	50,000	34,491,902
11	2020.12.31 14:57:52	전자금융		0	50,000	34,441,902
12	2020.12.31 14:51:15	스마트알림	건강하게일어나랍!	0	10,000	34,391,902
13	2020.12.31 14:05:26	전자금융	일어나랍쳑자	0	20,000	34,381,902
14	2020.12.31 13:45:33	전자금융	아들아랍쳑자!	0	10,000	34,361,902
15	2020.12.31 12:58:48	전자금융		0	10,000	34,351,902
16	2020.12.31 12:04:40	전자금융		0	3,000	34,341,902
17	2020.12.31 12:03:57	전자금융	빨른일어나랍쳑자!	0	10,000	34,338,902
18	2020.12.30 23:26:21	전자금융	일어나랍쳑자	0	5,000	34,328,902
19	2020.12.30 21:28:11	전자금융	어서일어나자	0	50,000	34,323,902
20	2020.12.30 16:18:34	스마트알림	아들기일어나자~	0	10,000	34,273,902
21	2020.12.30 16:08:15	전자금융	형아 ^랍쳑자	0	5,000	34,263,902
22	2020.12.29 19:19:50	전자금융	일어나랍쳑자	0	30,000	34,258,902
23	2020.12.29 18:04:47	스마트알림	일어나랍쳑자!	0	20,000	34,228,902
24	2020.12.29 14:07:01	타행송금	일어나자	0	30,000	34,208,902
25	2020.12.29 12:02:00	전자금융	너를응원해	0	10,000	34,178,902

영맘 카페에 진행 된 모금내역

A군의 아버지는 “영맘 어버님 아버님들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들이 깨어난 것 같다”며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진심이 담긴 글, 댓글 하나하나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답했다.

김미희 기자

‘손님 행세’ 900만원 상당 귀금속 가로챈 30대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로 귀금속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절도)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금은방에서 25돈짜리 순금 팔찌·목걸이 2점(9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손님 행세를 한 A씨는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착용한 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훔친 귀금속을 서울 모처에서 처분한 뒤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가 서울·부산을 거쳐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광주 방면으로 향하는 정황을 포착,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인 점 등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집중 단속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연료유 황 함유랑 기준을 초과한 선박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범정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연료유 수급 내역을 통해 황 함유랑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제 항해 선박은 유종에 관계 없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여야 한다.

국내 항해 선박은 경유는 0.05% 이하, 중질유는 0.5%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기준 초과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다 적발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연료유 황 함유량 허용 기준을 준수해 미세먼지가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며 “해경도 해양오염 방제·저감 등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주 골목길서 사고 차량이 인근 주점 덮쳐…3명 부상

5일 오후 2시3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골목길 사거리에서 소나타 승용차량과 구형 아반떼 승용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63·여)씨가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아반떼 차량 운전자 등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 한 대가 튕겨져 나가면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 소나타 차량이 사고 여파로 튕겨나가 인근 주점을 덮쳐 가게 출입문이 크게 파손되고, 의자와 테이블 등 집기가 부서졌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2명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와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빠차 끌고나온 15살…용인→서울까지 ‘겁없는 질주’

중학생이 아버지의 차를 몰래 운전하고 결국 주차장에 정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께 경기 용인 소재 주거지에서 아버지 소유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오전 6시께 동호대교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 4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친구 4명도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